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하여

여 리 포 항

2012. 반상회보
www.ipohang.org
발간등록 75-502000-00010-08



행복 파트너 포항 2012 흑룡의 비상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포항

테마산책 구룡포 대게와 탕고를

우리 엄마 레베카

학부모 참관 수업하는 날
영철이가 만든 토끼의 귀는 쫑긋쫑긋
책에 있는 기린을 똑같이 만든 채현
다숨이가 그린 어두운 엄마 얼굴
엄마 레베카를 결눈질로 보고
얼굴 붉어 창밖만 바라보는 다숨이
창밖 꽃밭에는 토종과 외래종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미술시간 끝나고 영어시간
필리핀에서 온 다숨이 엄마가 오늘 영어 선생님
타갈로그어로 이따, 달라와, 판로
영어로 원, 투, 쓰리
신이 나 친구들에게 으쓱으쓱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엄마 목소리
두 사람 지나가기 빠듯한 길에
드문드문 햇살이 비쳤어요



열린포항

www.ipohang.org



●● 05



●● 11



●● 12



●● 17

02 | 2012 CONTENTS

- 04 특집 | 행복 파트너 포항 2012 흑룡의 비상
- 09 포토뉴스 |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하는 포항 나들이
- 10 테마산책 | 구룡포 대게와 탕고를
- 12 기획 |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포항
- 16 문화&교양 | 육거리 문화공간 갤러리展 III
- 17 시정브리핑 | 호미곶 해맞이축전 20만 인파 속 성황리 마쳐 외
- 20 의정브리핑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정 외
- 22 포항사랑 | 전통시장 체험단 포항방문, 여행도 하고 설장도 보고 외
- 23 갤러리 | 기호의 동지 7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포항은 출산 및 보육정책으로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중이다.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깊어지는 포항의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창의력 키우기 놀이에 푹 빠져있다.



손글씨 · 이현정

발행처 | 포항시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편집인 | 홍보담당관 정종두
 편집담당 | 홍보담당장속경, 황보영
 담당주소 |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대잠동 1001) 054)270-2233
 발행일 | 2012년 1월 25일(통권 제102호)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054)275-0558
 인쇄 | 남진기획 054)274-1567
 홈페이지 | www.ipohang.org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 파트너 포항! 2012

축융의 비상

●●●포항이 2012년 임진년을 맞아 환동해권 국제경제 및 해양관광 허브로 비상하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

환동해권 국제경제 및 해양관광 허브 건설을 위한 SOC사업으로 올해 ▲포항 영일만항 건설 1,225억 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1,40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2,200억 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1,100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 100억 원 ▲KTX 포항직결노선 건설 330억 원이 투입된다. ●●●

“
국가예산,
사상 최대 규모인 7,733억 원
확보로 괄목할 성과
”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송도백사장 침식방지 사업에 40억 원을 확보해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사업에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동빈내항 복원과 연계해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재생은 물론 환경도시로 거듭나는가 하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40억 원 ▲포항야구장 건립 11억 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 12억 원 등을 확보해 포항이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450억 원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40억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개발 56억 원 ▲수소연

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7억 원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21억 원 등을 확보해 미래 100년을 위한 첨단과학 인프라도 구축하게 된다.

포항시민의 최대관심사인 동빈운하사업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미 1,300여 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갈수기 동빈운하의 유량 확보를 위해 형산강 동빈운하 유입부에 수문, 벽천, 홍보관, 양수장, 친수공간, 인도교 등을 설치한 형산강물관리센터도 내년까지 완공한다.

환동해권 경제 허브, 첨단과학도시의 기반도 더욱 다진다. 중국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 전략항만으로 집중·육성할 영일만항 건설에 올해도 1,148억 원을 투입, 북방파제 2단계(1.03km) 및 일반부두 2선석을 준공하고, 남방파제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자유무역 예정지역인 영일만항 배후단지는 이미 1단계(424천㎡)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오는 2015년 배후단지가 완공되면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은 물론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는 964천㎡ 규모로 올해 말 완공되면 연간 9,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는 198천㎡ 규모로 오는 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보상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항의 우수한 과학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와 테크노밸리 구축을 위한 포항테크노파크2단계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가 2015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한다. 포항블루밸리는 6,203천㎡ 규모에 9,926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에 완공된다.





- 국가산업단지인 포항블루베리 조감도
-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 조감도
-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될 죽도시장 모습
- 덕동마을 포항전통문화체험관 모습

세계 최첨단 0.1나노급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건축물 공사는 물론 주요장치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간다. 특히 재료과학·의학·생물학·화학·제약 등 순수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 DNA구조분석, 신약개발 등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진행된다. 장성동 삼흥로(두산위브~LH주택단지) 일원이 올해 안에 걷고 싶은 숲길로 조성된다. 여기에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중인 양덕동에서 오어사를 잇는 80km에 달하는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된다.

대송면 운제산 일원에 산림욕장 1개소(7.5ha), 숲길 25km(10개 노선) 등 산림휴양시설이 올해부터 조성되어 2014년에 완공된다. 송라면 대전리 내연산 일원에 50ha 규모의 '치유의 숲'도 조성기로 했다. 올해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228ha 규모의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도 내년까지 완료한다. 올해는 숲속의집·관리사 등에 대한 건축공사와 물놀이장 시설을 완료한다.

포항이 해양관광레포츠도시로 변모한다. 죽도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테마거리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과매기거리 및 수산물거리는 물론 공연장 건립 및 관광안내소도 설치한다.

덕동마을에 '담장 너머 숲의 마을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포항전통문화체험관 준공 및 개관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음식체험관, 전통숙박체험관, 야외놀이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 제공, 문화센터로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중앙도서관은 현 포은도서관 부지에 연면적 9,917㎡(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열람실, 디지털실, 시청각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선다. 240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4년에 완공하며, 올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장기에 유배지촌을 조성하고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에도 탄력을 붙인다. 2015년에 완공하지만 올해는 체험장 조성, 인성교육관 부지 매입, 새마을시대촌 재현, 체험학습장, 문성지 친환경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에 나선다.

여기에 11,673석 규모의 포항야구장이 오는 7월 준공된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1군 경기가 연중 9경기 이상 열리고, 동계야구캠프를 운영하여 전지훈련지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도동에 연면적 7,500㎡ 규모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핸드볼 경기장,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다목적체육관도 연내 준공한다.

물류도시 포항

'환동해 경제허브' 미래 그린다!

7월 아태도시서미트 회의에서 '환동해 경제허브 포항' 선언

포항시가 환동해 지역의 경제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새해부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오는 7월 포항에서 열리는 아태도시서미트 회의에서 환동해경제허브포항을 선언할 것"이라며 "국경을 넘어서는 지자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포항이 환동해 경제허브로서 아태 지역의 도시발전을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동해경제허브포항은 지리적으로 환동해지역의 중심에 있는 포항이 중국 동북3성, 일본서안, 러시아 극동 지역 등 환동해 지역의 경제, 산업, 물류, 자본과 문화예술 모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박시장은 "분야별 국내외 석학, 시민단체, 환동해권 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된 환동해 경제허브 포항추진위를 빠른 시일안에 구성하고, 국제회의와 한국내 환동해지역 도시와의 접촉을 통해 왜 포항이 환동해지역의 경제허브가 돼야 하는지를 꾸준히 홍보하고 설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태도시서미트 회의는 13개국 29개 도시 시장이 참석하는 회의. 포항시는 이곳에서 환동해경제허브포항을 선언한 후 9월 속초에서 열리는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에서는 환동해 거점도시 상설사무국의 포항 유치에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자매?우호도시와 1도시 1교류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 후쿠야마와는 영일만항 크루즈선 운항을, 중국 다롄시와는 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함께 중국, 러시아, 동남아, 일본 서해를 잇는 환동해권 중심항만인 영일만항을 이용해 환동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환동해권 지역 도시들 간 경쟁 보다는 협력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공동 발전을 위해 포항시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7월 APCS회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제도 변경·개선사항,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한다.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 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다. 한·미 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도 cc당 20원이 내린다.

◇ **산업** : 오는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 내에 직접 게시한다.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물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5만 원권, 10만 원권 두 종류로 발행되고,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환경·국토** :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수도요금 및 원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이 기존의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방법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 **고용·노동** : 중소기업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행정안전** :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훈·국방·병무** :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올해보다 약 4% 인상된다.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이 1:1 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한다. 고졸 이하 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 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한다.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 **교육·문화·농식품** : 올해부터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덕동문화마을(기록사랑마을) 북구 기북면 오덕1리 덕동마을은 기록사랑마을 4호다. 기록사랑마을은 민간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2008년부터 지정·실시하는 사업이다. 덕동문화마을은 1911년에 측량한 마을 임야도면, 200여 년 이전에 생산되었다고 추정되는 호적단자, 송계숲과 세덕사의 역사를 나타내는 마을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 1천여 점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로보라이프뮤지엄 남구 효자동에는 과학이 살아 숨 쉬는 로보라이프뮤지엄이 있다. 이곳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나는 토요일, 보고, 만들고다. 두 번째는 '고학년 로봇스쿨'이다. 자세한 방문예약 문의는 로보라이프뮤지엄 (054-279-0427)으로 할 것. 주변 볼거리와 먹거리로 손꼽을 만한 곳은 청암학술정보관, 박태준 선생 동상, 포스텍 국제관 5층 고급중국레스토랑 피닉스, 포스텍 연못이다.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하는 포항 나들이



장기초롱구비마을 포항시가 선정한 장기면 산서리 초롱구비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이다.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깃든 이곳에서는 대나무숯과 맥반석을 이용한 나만의 숯부작 만들기,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황토방 짚질, 디딜방아 짚기, 떡매치기 등이 가능하다. 주변 볼거리는 양포항과 장기읍성이다. 체험 및 민박 예약문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위원장(엄재율, 011-821-1610) 또는 농업기술센터 이경옥 지도사(011-9591-7600)에게 할 것.



녹유정 썰매장 북구 죽장면 두마리는 하늘 아래 별을 만지는 첫 동네다. 이곳 두마리에는 정년퇴임을 한 최명식 씨가 녹유정 썰매장과 팬션을 운영하고 있다. 해발 6백 미터 고지에 자리 잡은 녹유정은 푸르름이 머무는 정원이라는 뜻. 지난해 12월 24일에 개장한 썰매장에서는 유료로 얼음을 탈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다. 자세한 문의는 녹유정 (054) 262-7250으로 할 것.

구룡포 대게와 구룡포 우회도로

●●● # 포구로 가는 우회도로

추위가 속지지 않는다. 1월의 겨울바람은 쌀쌀맞고 강박한 녀석이다. 운전석 옆에 앉은 히터 바람이 봄바람에게 문자 한 통을 날려 보낸다. 나, 이번에 개통한 사통팔달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탔다. 우리 인생의 봄도 시원히 뚫린 우회도로를 탄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환을 앞세운 대한과 입춘은 어디 서 올까. 봄이 오는 길목은 저토록 멀고 구룡포대게 먹으러 가는 길목은 이토록 가깝다. 금광 IC부터 구룡포까지는 2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





벤티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설레발치는 아침 10시경, 누군가 위판장 입구 천장에 매달린 낚시 종을 흔들자 201, 26, 234, 55, 203, 61, 107, 258의 모자가 위판장 한 쪽에 7자로 모여 선다. 경매를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판매2과 직원이 이어야, 하는 소리를 길게 내지른다. 좌중을 압도하는 이어야 소리는 먼 바다 고래들끼리 주고받는 노랫가락 같아서 무척이나 낯설다. 이어야 소리 속에 모여든 모자들은 점퍼 속에 감춘 손가락을 재빨리 펴고 오므린다. 판매2과 직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숫자를 불러댄다. 한 쪽에서는 벤티사람들이 대개 5백여 마리를 순식간에 정돈한다. 이런 식으로 한 경매가 끝나면 판매2과 직원과 중매인들은 대계를 가지런히 정돈한 다른 쪽 경매 장소로 이동한다.

포구의 오후

오전 10시부터 전을 편 대개 경매는 정오가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 집계말에 물러 탱고를 출까. 구룡포대개는 위판장 바닥에서 지폐를 물겠다는 태세다. 위판장 입구에서는 대개 전용 수족관 차량들이 대기한 지 오래다. 11번 영덕대개총판도 그중 하나다. 박달은 마이 비싸고, 요거는 헐코. 경매를 마친 이지매는 차량 옆 손님에게 대개 가격을 몽뚱그려 설명하기 바쁘다. 위판장 근처에서는 구룡포수협 중매인들이 손님들을 맞는다. 손님들은 중매인에게 섬을 치른 뒤 생것 또는 익힌 것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간다. 버스로 부치는 택배는 하루면 충분하고요. 택배회사로 부치는 택배는 다음날에 도착합니다. 대개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알이 찻는지 안 찻는지 알 수 있습니다. 뜨내기 장사꾼도 아닌데 실하지 않은 대개를 택배로 부칠 수 없다는 게 창주수산 구룡포수협 지정중매인 288면 이재희 씨의 설명이다.

포구를 빠져나가며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를 휘돌아 나온 하늬바람이 버스종점에서 200번을 황급히 탄다. 돌아가는 길에 구룡포과메기를 사갈까, 구룡포오징어를 사갈까. 버스 종점 옆은 항만청 부지다. 가까이에는 구룡포과메기문화거리 풍치 조형물이 보인다. 과메기 판매장 24동은 2월 중순까지 항만청 부지에서 어깨를 맞대고 손님들을 기다린다.

포구의 밤

구룡포과메기문화거리 아래광장 건너편에는 독도회대개, 영일만회대개, 은파회대개, 모포회대개, 돌고래회대개, 파도회대개 네온사인 간판이 손님들을 불러 모은다. 간판 아래 현수막은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같다. 은파회대개식당의 '가장 싼 집 안 드시면 후회할 걸?' 문구는 꼬집고 싶을 만큼 짝짜하다. 돌고래회대개식당의 '심봉사도 맛에 놀라 눈뜬 집, 20년 전통 수협 중매인 288에서 모십니다' 문구는 웃음을 자아낸다. 모포회대개식당의 '원조 명품 구룡포 박달대개 드시러 오이소' 문구는 곰살궂은 사투리다. 금요일 저녁 8시 아래광장 도로가, 봉고차에 오르는 일가족은 구룡포대개를 먹으러 온 서울사람들이다. 목덜미 선득한 포구의 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작나무 호텔 7층에 오른다. 바다가 보이는 방 있습니까. 예, 테라스에 서면 야경이 보입니다. 질문도 대답도 짧다. 704호에 든다. 창가로 가본다. 커튼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창문을 열면 테라스다. 저 아래는 구룡포수협 위판장 건물. 구룡포수협 전광판에는 대개 57%, 오징어 20%, 전국 최대 생산량 문구가 흘러간다.

포구의 아침

9시 30분이 지나자 수성호와 금성호가 부두 위로 대개 상자를 끝없이 퍼내고 있다. 위판장 바닥은 대개 수를 헤아리기 좋게 펴는 곳.



포항의 100년 꿈과 희망,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포항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농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말들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에서조차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과 보육 정책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항시도 이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아이성장에 맞춘 체계적인 배려,
지원의 범위도 혜택도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등 출산과 보육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진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린다.

● **다문화 자녀를 위한 외국어어린이집 3월 개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전인적 통합교육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외국어 어린이집이 오는 3월 준공 및 개소한다. 지난 2010년 11월 착공한 외국어 어린이집은 8,466㎡ 부지에 연면적 336㎡(지상1층) 규모이다.

● **아이들의 요람, 영유아플라자 연내 완공**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5 뱃머리마을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연면적 1,100㎡)가 올 12월 완공되면 아이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플라자는 체험학습관에 물놀이체험, 공기대포, 크레인 등을 설치해 체험을 통한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장난감도서관, 육아상담실, 어린이공개홀, 정보센터, 어린이방송국 등으로 꾸며진다. 또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신체, 미술, 언어, 인지 등 새롭고 체험적인 학습놀이 공간과 육아상담 및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진형 보육인프라로 꾸며진다. 영유아플라자가 완공되면 이 지역은 뱃머리문화관과 명실 공히 문화·복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는 부모

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선진보육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전국 최초로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체제 구축**



특히 소도시 지방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지방병원 기피현상, 저출산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료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지난 1월 6일까지 관내 세명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 등 4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다. 앞으로 소아전용 응급실의 필요성, 인력운영 및 시설개선 계획 등을 심사해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 병원 1곳을 최종 선정한다.

공모 조건은 성인응급실과 소아응급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야간·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문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통해 24시간 소아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산모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배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 학원비 감면해 주는 '출산장려 1·2·3운동' 전개

포항시와 포항교육청·포항시학원연합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해 다자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 1·2·3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산장려 1·2·3운동이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설학원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학원에서 시행한다.

3자녀 가정 중 1명 입학 시 수강료 10%, 2명 입학 시 첫 번째 입학생 10%, 두 번째 입학생 20%, 3명 입학 시 첫 번째 입학생 10%, 두 번째 입학생 20%, 세 번째 30% 등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참여학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1·2·3운동 참여학원' 인증패를 달아준다.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일시금 100만 원, 월 10만 원 12개월(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을 지원한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신생아 또는 부·모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지원대상은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3년납 10년 보장(월 2만 원 정도,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이 지원내용이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부·모 신분증이다. (문의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70-2993)

● 출산 전후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중 임신 중인 자로 지원내용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 형태(1인당 40만 원)로 2012년 4월1일부터 1인 50만 원을 지원한다.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 또는 국민은행(1577-1000, 1588-1900, 1588-9999))

이밖에도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 '행복한 육아일기 공모'를 연중 실시한다. 월 4편 내외의 당선작을 선정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준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재미와 감동을 담은 영상을 통해 결혼, 출산 장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출산, 육아UCC'도 공모한다. (☎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70-2991).



화려한 덩크족을 꿈꾸며...

| 육아일기 공모전 당선작, 글쓴이 : 안치영, 포항시 흥해읍 |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되잖아! 용돈 좀 덜 쓰고 아끼면서 살면 아기가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저희는 아기 안 낳을래요!"

그 어렵다는 시어머님께, 결혼한 지 일년째 되던 날, 난 선전포고를 했다.

아기를 낳기엔 서른이 훌쩍 넘은 내 나이도 부담스러웠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데가 많다는 주위 사람들의 한숨에 너무도 익숙했던 터라 더 이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다는 우리 부부의 심오한 생각 때문이었다.

"... .." 기가 막힌 듯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님은 그 후 오랫동안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으셨고 함께 살고 있던 터라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부부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주위에서 아이들 때문에 한밤중에 응급실엘 다녀온 얘기~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저 봐! 우리가 현명한 거야 ㅋㅋ"

생각해보면 거의 매일 저녁 우리 부부는 이런 얘기들을 하며 야호를 외쳤던 것 같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우리 부부를 두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내용인 즉슨 '우리 둘 중 누가 문제냐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문제길래 아기가 안 생기나?' '안 됐다~ 측은하다~ 걱정된다 '어? 우린 건강한데?' 원래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해버리지 못 하는 성격의 우리 부부가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학교 다닐 땐 그 예쁜 친구가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돈 잘 버는 신랑 만나 잘살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은 터라 잔뜩 기대를 했던 나는 초췌한 친구의 모습에 실망을 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친구가 뜻밖의 고백을 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다는 ... 병원 문이 닳도록 들락거리고 그 좋다는 썩뎠도 줄기 차게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젠 어른들 보기도 난감하다는 ... 순간 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였다!!!

'아~ 아기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후 내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늘 화려한 덩크족을 꿈꾸던 우리 신랑을 끊임없이 설득하기 시작했다~

"자야! 우리가 지금은 젊어서 모르지만 이 담에 나이 들고 나면 자식도 없이 우리 둘이 달랑 뭐 할 거야?"

"누군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데 우린 건강한 몸으로 시도도 안 해본다는 게 억울하지 않아?"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되잖아! 용돈 좀 덜 쓰고 아끼면서 살면 아기가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처음엔 '갑자기 왜 이러냐며 의아해 하던 신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3월인데도 하늘에서 눈이 펄펄 쏟아지던 어느 날, 우린 흰눈의 정기를 받아보자며 손바닥을 찰싹 쳤다. 그날! 우리 귀여운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 뽀옹~ 하고 들어오게 되었다!!!



인터뷰로 만난 육거리 문화공간 갤러리展 III

1 첫 번째 만난 사람 _ 허정선(학예사)

이번 전시 부제목은 '플래카드 시화전 · 육거리, 동심의 세계로 물들다'이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에서 기획한 세 번째 전시 기간은 2011년 연말과 2012년 연초다. 주제는 동심이다. 생기발랄하고 따뜻한 동시, 동화, 서예가 참여했다. 그중 동시는 포항문인협회에서 주관한 2010년과 2011년의 첫물백 일장 · 재생백일장, 2011년의 평보백일장에서 장원을 받은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작품 15점이고 동화는 2010년과 2011년에 포항문화방송사에서 주관한 전국그림그리기대회 유치부 · 초등부 대상 · 특선 수상작 110점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시가 운전자를 배려한 것이라면 세 번째 전시는 도보자를 배려한 것이다.

2 두 번째 만난 사람 _ 송호민(화가)

백도날드는 학창시절에 드나들던 아름다운 기억이다. 북포항우체국 앞의 지금도 지인들과 약속을 정해 만나는 장소다. 화가이기 때문에 중앙상가실개천거리 쪽 문구센터나 화방을 가끔 이용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내 작품은 「일상 작업실」이다. 허정선 씨가 의뢰한 초기작품 2점을 꺼내놓고 내심 설레었다. 동심이 녹아든 작품으로 포항시민을 만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다양한 시민참여가 아쉽다.

3 세 번째 만난 사람 _ 하재영(시인)

중앙상가실개천거리에 흐르는 물길을 보면 정지용 선생의 시 「향수」가 떠오른다. 책을 좋아해 실개천거리 물길 옆 학원사에 들를 때가 있다. 이곳은 바지를 사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22일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에서 열린 갤러리展 III 오픈팅 때에는 나를 포함한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그날 내가 쓴 동시 「동근 웃음」을 1학년 어린이가 낭송했다. 나는 어린이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에 빠져들면서 맑은 동심을 다시 만났고, 갤러리展 III이 어린이날이든 5월에 열린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4 네 번째 만난 사람 _ 정현식(서예가)

서예가로서 기억에 남는 작품은 호미꽃 이육사 시비, 수도산 옛 포항시민의 노래와 이명석 문화공덕비, 포스트 박태준 선생 동상이다. 북포항우체국 외벽 전시물 하재영 선생의 동시에는 솔피 민체가 쓰였다. 글씨라는 건 마음을 담는 것이다. 동심의 천진난만을 「동근 웃음」에 담고 싶었다. 물길이 바뀌면 인심이 바뀐다. 실개천거리의 작은 물길이 새로운 문화의 시도가 되고 포항을 바꾸는 위대한 흐름이 되기를 바란다.

5 다섯 번째 만난 사람 _ 김희준(카페사장)

나는 카페 1944 사장이다. 카페 이름은 건물 준공연도에 착안한 것이다. 나는 전시, 공연에 관심이 많다. 갤러리展 III는 문화거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인다. 반면에 참여 작품들이 프린트물이라 아쉽다. 넉넉한 예산 확보와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젊은 거리 실개천에서 「포항버스 101」이라는 벽화를 본 적 있는가. 금은보석 시장당 옆구리로 흘러들면 카페 1944가 있는데 이 근처 벽면에 아마추어 화가들이 벽화 몇 점을 그려놓았다. 육거리 문화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벽화에서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청소년 우범지역이던 골목길이 지금은 밝은 곳으로 변했다. 이것은 전시 기획자에게 제공하는 깜찍하고도 발칙한 힌트다.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20만 인파 속 성황리 마쳐



포항 호미곶에서 개최된 '제14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이 20만 명의 인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가운데 '소통(疏通)의 화두'를 전 국민에게 전하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새해 1월 1일 호미곶에 운집한 해맞이객들은 오전 7시 46분께 구름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자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카메라와 휴대폰 버튼을 눌렀고 친구와 가족의 손을 잡고 새해 소망을 빌었다. 해맞이객들은 이어 새천년기념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2012 상생과 소통의 대합창'에 참가했다. 현장접수를 통해 대합창 퍼포먼스에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 2,012명은 질서정연하게 손에 손을 잡고 한반도 지도 형상을 그린 후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며 대한민국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는 한편 3월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그리고 7월 포항에서 열릴 아시아도시서미트 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대합창이 마무리되자 호미곶 광장에서는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일제히 밤새도록 준비한 떡국 1만 명분을 배식했고 순식간에 돌레 10.3m의 국내 최대 가마솥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번 해맞이행사에서는 호미곶의 추위와 강한 바람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철제 칸테이너를 설치했고 부대행사로 소원지달기, 소원단지(타임캡슐),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한편 호미곶 한민족해맞이행사는 지난해 연말 개통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교통량이 분산, 교통소통이 원활했으며 최근 완공된 해상탐방로가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동빈내항 복원 개발 사업소서 새해 첫 시무식



영일만르네상스를 향하는 포항시청 공무원들의 함성이 동빈내항복원 개발사업소 현장에 울려 퍼졌다. 포항시는 1월 2일 동빈내항복원 개발사업소 현장에서 공무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시는 실내에서 개최하던 종전의 시무식과는 달리 올해는 동빈내항 복원사업 개발사업소 현장에서 시무식을 개최,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복중심'의 시정을 실천하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정을 통해 포항에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포항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이를 통해 행복도시 포항, 영일만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환동해지역 경제 주도권 잡기 속도 낸다

포항시가 새해 들어 환동해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신발판을 바짝 죄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1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환동해경제허브포항 선언은 영일만르네상스의 목표지향적이고 포항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7월 아태도시서미트회의를 통해 선언할 환동해경제허브포항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데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1월 4일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동해경제허브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동해경제허브포항은 포항이 중국 동북3성, 일본서안, 러시아 극동지역 등 환동해권의 경제, 산업, 물류, 자본과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야별 국내외 석학, 시민단체, 환동해권의 유력인사, 공무원으로 환동해경제허브 포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내 부서별로 역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7월 선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직원들이 현재 포항이 가지고 있는 강점 등을 통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회의와 한국 내 환동해지역 도시와의 접촉을 통해 왜 포항이 환동해지역의 경제허브가 돼야 하는지 등을 꾸준히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형산강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동빈우하 형산강 물관리센터건립과 수변공원조성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산강정비공사' 기공식이 지난해 12월 26일 해도동 형산강 고수부지에서 열렸다. 총 사업비 1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형산강 포항지구 정비공사는 4대강 외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반영, 전액 국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3년 6월 준공될 이 사업은 1공구 수변공원화 112km, 2공구 물관리센터 관리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16,96㎡), 인도교(길이 123.7m), 수문, 벽천, 양수장 설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형산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하천 수변공간 복원 등 국가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생태, 문화 등이 조화된 하천 및 복합 공간창조를 목표로 진행된다. 형산강 물관리센터는 동빈내항 복원사업 완공 후 갈수기에 대비 인위적으로 강물을 끌어올려 유속 흐름을 높이는 것으로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포항시, 2011 포항시정 TOP-7 선정

포항시는 2011년 한 해 동안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 29일 '포항시정 TOP-7'을 선정·발표했다. 최우수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추진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에는 도심에 방치된 폐 철도부지에 산책로 등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을 제공한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사업과 조직 내 낭비요소를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한 '제2의 행정새마을운동 및 OSS 운영'이 선정됐다.

장려에는 '투지와 정성으로 이비덴·포스코 신사업 유치' 사업과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특혜차단 사업,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마을주민 대상으로 한 칭찬라레이 '청림동이 새롭게 탈바꿈하다' 사업이 선정됐다.

'포항시정 TOP-7'은 시청은 물론 사업소, 구청 등 전부서에서 자체 심사해 제출한 시책·사업이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익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성과가 큰 사업 순으로 7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포항시 축산발전종합 사업계획 수립

포항시가 축산발전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축산농가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포항시는 한·미 FTA를 비롯, 대외 개방으로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작년보다 148% 증액된 총 88개 사업에 110억 원의 2012년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1월부터 조기시행키로 했다.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20종에 13억원, 국산조사료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등 11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액비화 시설과 양질액비생산비, 액비살포비에 7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투명화를 위한 광역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 등 42개 사업에 53억 원, 구제역, A 등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축사진입 차량소독시설 등 11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입, 축산업 위기에 대응한 안전성장 기반확보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백신접종, 일제소독·예찰 등 유사시 신속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직원을 농가별 담당자로 지정, 매월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와 예방백신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해 구제역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강화에도 철저히 기할 방침이다.

포항야구장, 7월에 준공된다



포항시와 경북 동해안지역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인 포항야구장이 7월에 준공된다. 포항야구장은 관람석 1만2천석에 건축 연면적 2만㎡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현재 공정율이 6%이며 준공되면 8월에 개장기념 제1회 KBO총재배 전국중학교야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홈 경기를 2~3게임 계획 중이다. 삼성라이온즈 1군 홈경기가 1년에 9경기 이상 유치되며, 라이온즈 2군 홈구장으로 지정돼 2군 경기는 과반수 이상 펼쳐질 예정이다.

포항국제불빛축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2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전국 1천200여 개 축제 가운데 45개만 선정되는 국가축제로 지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국비와 도비 등 1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축제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이 지원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 홍보와 축제 컨설팅도 지원받게 된다.

자율복장제 청바지-Day! "발상의 전환 시작"

포항시가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행정을 위한 자율복장제 '청바지-Day'를 운영한다. 청바지-Day는 양복과 넥타이가 아닌, 면바지 및 티셔츠 등의 옷으로 출근하는 것을 말하며 포항시는 올해 1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자율적인 복장으로 근무하는 날인 청바지-Day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포항시 측은 "소위 공무원의 고백인 정장을 벗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창조적이고 유연한 마인드를 가져보자는 의미"라며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듯이 유연한 복장이 유연한 사고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대시민 서비스로 눈높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이나 공직예절에 어긋나는 복장은 자제할 방침이며 "또한 공무원증도 반드시 착용토록 하는 등 자율복장 가이드라인은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사업 실시

포항시는 한국에너지재단 후원으로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유 연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난방유 지원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난방연료(실내등유) 부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가구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43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200리터 1드럼(2만5천 원 상당)이 지원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3월 31일까지 인근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에너지재단의 승인을 얻어 난방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항영일만항 부두에서 포스코 컨테이너 화물 첫 수출



포스코 컨테이너화물이 지난 12월 21일 포항영일만항 부두에서 고려해운 안드레아스호 선박에 적재돼 첫 수출됐다.

이번에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영일만항 현지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거쳐 주 1항차씩 말레이시아 파시르구당에 운송되어 고려제강 현지 공장에 인도되며, 이와 연계된 물동량은 20,000TEU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계기로 POSCO Family사의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9월 개장한 영일만항의 조기활성화와 물류 다변화를 위하여 지역의 최대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에서는 벌크 화물을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하나로 PCT가 영일만항 부두 내에 컨테이너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가설건축물)과 설비를 구축하고 포스코, 대우로지스틱스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의 기술적 테스트를 거쳐 제품 하자여부와 비용문제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마침내 이날 첫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 제183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정



지난 1년 동안 열린의회 구현에 매진해온 포항시의회가 12월 23일 제1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1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438억 5천만 원보다 1.39% 증가한 1조 1,59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0.4%인 1,095억 원을 증액한 1조 1,61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 불요불급 예산 117억 3,363만 6천 원 삭감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포항시의회는 2012년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 세출예산 중 총 117억 3,363만 6천 원(일반·특별회계 포함)을 삭감하여 주민의 편리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57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0억 3,363만 6천 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특히, 포항시의회는 예산삭감 중 57억 원을 당초 채무부담하여 건립하기로 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5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시가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항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2011년 한 해 동안 포항시의회는 총 12회(정례회 2회, 임시회 10회), 100일의 회기일수 동안 1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2명의 시정질문과 1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3만 포항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전에 주력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포항시의회, 관내 소외된 이웃 6세대에 연탄 배달



포항시의회(의장 이상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 서고 있다. 이상구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2월 23일 관내 중증장애인 6세대를 방문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구당 200장씩 모두 1,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의원들은 죽도동에 거주하는 임모 씨(54세) 집을 찾아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손을 잡아 안부를 물으며,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웠다.

▶▶ 포항시의회 신년 인사회 갖고 새로운 임진년 준비



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 3일 의회 1층에서 전체 시의원과 박승호 시장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이병석 국회의원, 전직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과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상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할 때 비로소 포항은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 KBS 1TV <TV쇼 진품명품> 참가자 접수 안내

- 녹화일시 : 2012. 1. 31(금) 오후 1시
- 녹화장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2층)
- 접수기간 : 2012. 1. 16(월) ~ 1. 27(금) 12일간
- 접수장소 : 홍보담당관실, 각 읍면동 총무담당
- 전화접수 : 054) 270-3372~3
- 참가대상 : 포항시민

▶▶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선 거 일 : 2012. 4. 11(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선 거 권 자 : 만 19세 이상(1993년 4월 12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 : 3. 23(금) ~ 3. 27(화), 5일간
- 부재자투표 : 4. 5(목) ~ 4. 6(금), 2일간
- 문 의 : 278-1390, 272-7500, 256-3939, 국번 없이 1390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자!

- 신청 및 납부기간 : 2012. 1. 2 ~ 2012. 1. 31
- 신청대상 : 해당구 모든 과세대상 차량
- 신청방법 : 구청세무과/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위택스 www.wetax.go.kr)
- 연납시 혜택 : 자동차세 연납세액의 10% 공제
- ※ 2011년도에 연납 납부하신 분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2년 은퇴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12. 2. 5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 접수장소 :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270-4155)
- 교육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된 55세~62세 남자 96명(기수별 32명)
- ※우대사항 : 포항시 3년 이상 거주자,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건강에 이상 없는 자 퇴직 시 현장근로 및 중소기업 근무자, 자원봉사 미일리자가 높은 자(읍면동장 추천)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북구보건소에 비치), 신분증, 우대사항 증명 가능한 서류
- 교육기간
 - 1기 : 2012. 2. 7 ~ 2012. 4. 24 매주 화요일 10:00~16:00 (12주)
 - 2기 : 2012. 5. 8 ~ 2012. 7. 24 매주 화요일 10:00~16:00 (12주)
 - 3기 : 2012. 9. 4 ~ 2012. 11. 27 매주 화요일 10:00~16:00 (12주)
- 교육내용
 - 건강증진교육 : 보건교육, 정신건강강좌
 - 은퇴후 생애설계 : 마음코칭, 노후생활설계
 - 건강생활습관 개선 : 건강체조교실, 자연치유요법
 - 현장체험 : 맨발걷기, 산림욕체험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로 신고

※ 서비스 범용성 보장을 위해 Android OS 2종 플랫폼 지원



1.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 설치
 - 아이폰 : AppStore 또는 iTunes를 통해 앱설치
 -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 Market 또는 통신사별 AppStore를 통해 앱설치
2. 불편사항 신고 - 메뉴바 민원등록 버튼 클릭
 - 민원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록 ▶ 내용작성 ▶ 사진·동영상·위치정보 등록 ▶ 신고
3. 처리사항 조회 - 메뉴바 자기민원 버튼 클릭
 - 신고한 불편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결과를 확인
4. 전체민원보기 - 메뉴바 전체민원 버튼 클릭
 - 공개등록된 다른 사람의 불편사항 민원은 모두가 조회하여 공유

▶▶ 2012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자(1993. 1. 1 이후 출생)
- 지원기간 : 2012년 연중
- 지원범위 : 지정(위탁)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및 행위료(만 원)
- 지원백신 :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PV(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일본뇌염(사백신) · 수두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지정(위탁)의료기관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270-4057) 북구보건소(270-4159)

▶▶ 학교폭력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시스템 운영

안전 DREAM(사회적 악자 통합 포털 시스템) 이용 신고방법

- 인터넷 : <http://www.safe182.go.kr>(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접속)
- 스마트폰 : 마켓에서 (실종아동 or 안전드림)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휴대폰 문자 : 수신자를 #117로 문자 송신
- 전화 : 112, 272-0118(포항남부경찰서), 250-0348(포항북부경찰서)

전통시장 체험단 포항방문, 여행도 하고 설장도 보고



동해안 최대 전통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이 KTX열차관광단을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며 포항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여 겨울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로 고객을 모집한 전통시장 체험단 240여 명이 1월 12일 포항을 방문했다. 이들은 포항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포항제철소를 관광하고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서 본격적인 죽도시장 설장보기에 나섰다. 이날 관광객들은 다른 어시장에서 보기 힘든 수산물인 개복치, 물곰, 고래고기 등 값싸고 싱싱한 해산물이 많아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 포항시민에 감사편지 전달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1월 9일 포항시민에게 신년인사와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례지원

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회장은 서신을 통해 지난 연말 박태준 명예회장님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포스코 패밀리에게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보내준 애도와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시민들의 후의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관내 중학생들, 민간교류 통해 포항브랜드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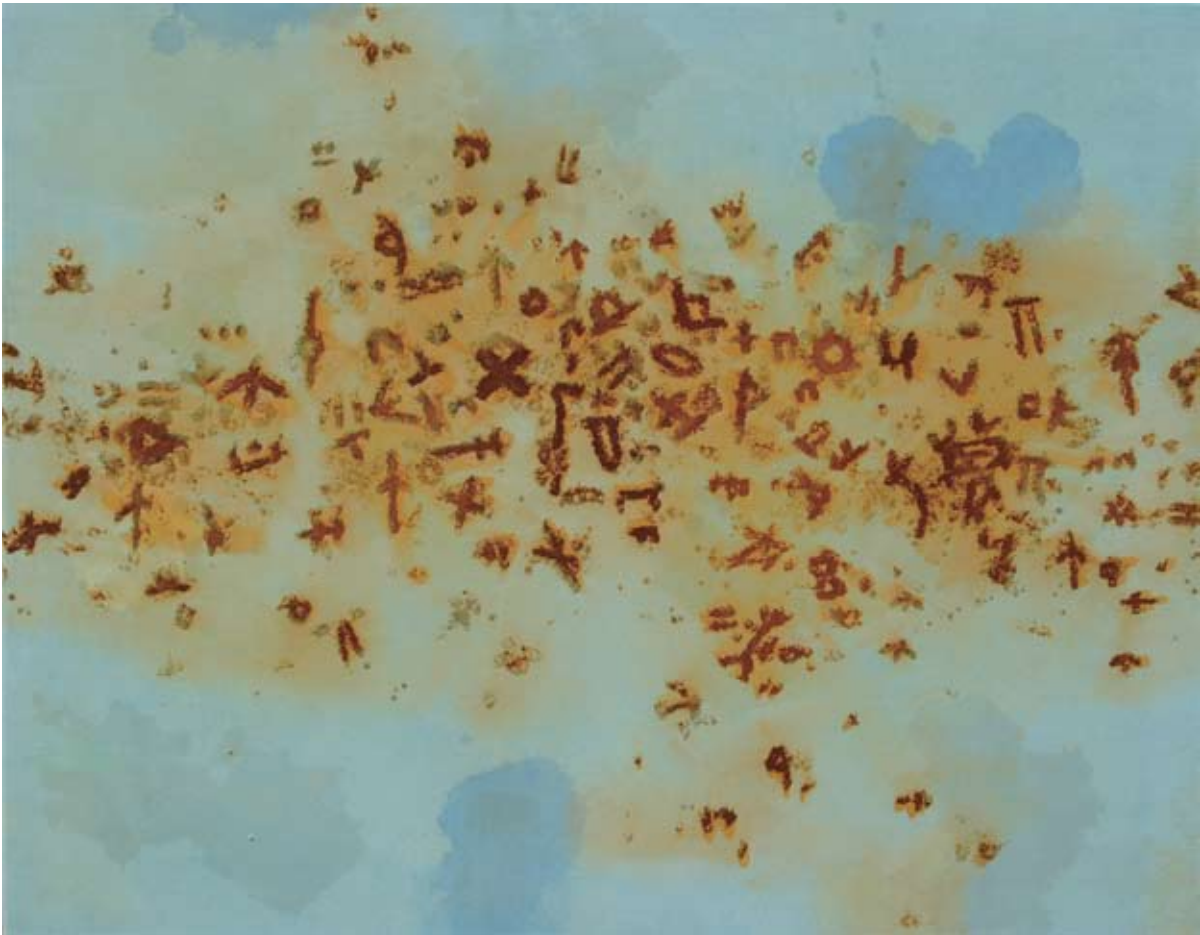
포항시 관내 중학생 홈스테이단장 정승수 포항MCA 부이사장이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자매도시인 중국 장자강시를 방문해 활발한 민간 외교활동으로 포항시의 도시브랜드를 드높였다. 관내 중학생 3명(남 1, 여 1)으로 구성된 이번 홈스테이 방문단은 방문 첫 2일간은 장자강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수퍼우시와 상하이시에서 역사문화체험을 하면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의 홈스테이 교류를 통하여 포항시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한편 나아가 양 도시 정부, 민간단체 간 교류를 넓혀 서로 윈-윈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하게 된 것

장학기금기탁자

- 이동교(교장 김유곤) 공모전 대상 시상금 300만 원
- 포항시의정회지방자치학교(교장 박만천) 200만 원
- 재포의성향우회(회장 김성욱) 300만 원
- 월계수회(회장 이재선) 200만 원
- 경일엔지니어링(대표 이우규) 1,000만 원
- 큰동해시장상인회(회장 김병석) 100만 원
- 포항동지교(교장 엄주백) 270만6천 원
- 운제산문화재추진위원회(위원장 진규화) 200만 원

- 포항대동고등학교(교장 김현호) 222만4천 원
- 포항오천교회(담임목사 박성근) 500만 원
- 포항출신 재일교포 안희수 씨 350만 원
- 오션힐스포항컨트리클럽(대표 김도균) 2,000만 원
-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영림) 1,500만6천920원
- 죽도시장상인회 좋은일하는사람들(회장 박순복) 130만 원
- 포항대동중(교장 김만수) 131만2천 원





기호의 동지 7_rusted iron & acrylic on canvas_117x 91cm_2011

원시사회에서 인류의 정신적 생존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신화적 상상력과 그 문명의 상징인 다양한 기호와 기록의 흔적들은 이번 작업의 중요한 단서이다.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쓰기기호나 그림기호, 새김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추구해왔다. ... 이번 작업에서는 이러한 이미지의 형상화를 통해 최초의 미술은 어떠한 동기로 제작되었으며 또 어떠한 조형성을 갖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를 새롭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 나의 작업에서 바라는 바는 이와 같이, 문명의 상징인 다양한 기호 또는 원시적 문자들이 작업과 결합된 모습을 통해 현대미술에 하나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검토해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시각, 촉각을 포함하는 실제적 공간에서 경험되어지는 미학적, 고고학적, 문화사적 표상들은 그것들이 사진 등의 평면적 재현을 가지고는 대체할 수 없는 또 다른 통시적인 감각 체험의 장으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숨 가쁘게 흘러만 가는 이 시대에 흘러가지 않는 것들의 의미를 통해서 미술이 일회성 소비 상품이나 오락이 아니라 현실과 영원이라는 양자를 서로 밀착시킬 수 있는 명상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상 봉

198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현재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미술학과 교수
 개인전 14회 단체전 2010 Eternal Brinking-한국현대미술전, 하와이대학 아트갤러리, 미국 | 2009 금강미술대전 특별초대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08 상해문화원 초대 동아시아 작가 교류전 (상해 문화원, 중국) | 2008 (순수한 조화), 갤러리 더 스페이스, 서울 | 2007~2009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COEX, 서울) | 2007 갤러리 마노 기획 (프렌즈)전 (마노갤러리, 서울) | 2006 The Asian Spirit & Soul (성남아트센터, 성남) | 2006 화랑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 2006 한,중,일 3국 서화작품전 (조주서화원, 하택, 중국) | 2004 제2회 상하이 아트페어 (상하이, 중국) 2002 한일 현대회화 표현전 (프롬나드갤러리, 동경, 일본)



행복파트너 포항! 2012

영일만르네상스를 향하여

53만 시민들의 (행복파트너, 포항)이 되겠습니다.

• 시민 중심 • 현장 중심 • 행복 중심 •

-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포항!
- 쾌적한 환경과 미래형 공간도시 포항!
- 일자리가 넘치고 경제가 살아나는 포항!
- 글로벌 고품격 선진도시 포항!
- 사계절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포항!

